

나이지리아의 石油政策

1. 머리말

나이지리아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래 취한 독자적인 石油政策은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단결성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재정적 위기 극복에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 시장지향적 석유가격 정책, 쿼터를 초과시키는 산유량 정책 등으로 지난 해의 石油收入은 13%나 증대되었다. 그로 인해 외채상환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에 단행한 油價인상으로 석유판매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경우 군사정부의 강경노선은 또 다시 油價인하 사태로 치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에 취한 나이지리아의 源油價 인상은 OPEC의 석유가격 공식에 적용시키는 한편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같은 유종인 北海産 원유에 대응시키기 위해 Bonny Light 원유가를 배럴당 65센트를 인상시키고, 그 보다 중질원유가격은 65센트 이하폭으로 인상조치했다. 정제시 Gas Oil 수율이 높아 수요가 많은 Forcados 원유와 Bonny Medium 원유가격은 배럴당 각각 55센트, 60센트 인상하고, Escravos 원유와 Pennington 원유가격은 45센트 인상했다.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Forcados 원유와 Bonny Medium 원유가격을 각각 배럴당 25센트, 30센트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위 「패키지 판매」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들이 최소 하루 2만배럴 수준을 수입할 경우, 할인가격으로 Forcados 35%, Bonny

Medium 15%와 공시가격으로 Bonny Light 원유나 Brass River 원유를 구매해야 한다. 또한 Bonny Light나 Brass River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Qua Iboe Escravos, Pennington 원유중 선택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석유회사들은 이와 같은 오퍼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Bonny Light 원유를 선택할 경우 복합단가는 배럴당 28.15달러인데 똑같은 패키지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할 경우는 28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原油의 공시가격 조정내용

(單位: \$/B)

수출유종	API	공시가격	조정	패키지價格	패키지판매(할인/할증)
Brass River	41.5°	28.65	+0.65	28.65	불변
Bonny Light	37°	28.65	+0.65	28.65	불변
Qua Iboe	36°	28.45	+0.50	28.60	+0.15
Escravos	36°	28.35	+0.45	28.50	+0.15
Pennington	36°	28.35	+0.45	28.50	+0.15
Forcados	30°	28.05	+0.55	27.80	-0.25
Bonny Medium	26°	27.60	+0.60	27.30	-0.30

註: 항구사용료(harbour fee) 배럴당 2센트제외.

2. 생산정책

강경한 석유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던 나이지리아 군사정부는 OPEC가 각 산유국의 생산량을 철저히

게 조사할 것이라는 결정이 있는 후 초과생산량을 삭감하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나이지리아의 현 산유량 실링은 130만B/D이며, 잠정적으로 145만B/D로 생산하도록 OPEC이 허용했으나, 최근 몇개월동안 160-170만배럴 수준의 산유량을 유지하여 왔다. 나이지리아의 석유관리들은 이번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자국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 산유량은 하루 145만배럴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수출물량이 그보다 훨씬 떨어질 경우 정부는 무역조건을 또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연간 평균 개념으로 볼 때, 산유량 실링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만일 油價인상으로 자국의 石油收入이 대폭 줄어 석유수출 조건을 더욱 완화시킬 경우 동국의 OPEC내에서의 독자성이 눈에 띄게 부각될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83년 2월 자국산 공시가를 일방적으로 배럴당 5.5달러 인하한데 이어 지난 해 10월 추가로 2달러 인하하여 석유시장에서 고집장이란 명성이 붙게 되었다.

석유가격이 점차적으로 현물시장가격에 연동됨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輕質原油 시장에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별다른 代案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5년 동안에 걸쳐 北海의 경질원유 생산량이 거의 2배로 증대된 데 반해, 분해시설 확충으로 정제업자들은 값비싼 경질원유를 투입하는 것보다 값싼 중질원유 및 연료유를 분해처리하여 경질제품화 하는 것이 훨씬 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서부유럽 및 美

石油收入 산유량 변화

(單位：100만달러, 100만B/D)

연 도	월 별	石油收入	산 유 량
1981	1	2,244	2,092
	2	1,865	1,943
	3	1,974	1,868
	4	1,627	1,623
	5	1,286	1,293
	6	1,312	1,351
	7	663	0,773
	8	585	0,708
	9	881	1,067

연 도	월 별	石油收入	산 유 량
	10	1,447	1,592
	11	1,447	1,592
	12	1,707	1,786
	연 간	16,713	1,442
1982	1	1,649	1,750
	2	1,136	1,394
	3	755	0,933
	4	664	0,888
	5	1,132	1,309
	6	1,442	1,647
	7	1,070	1,273
	8	894	1,103
	9	932	1,170
	10	1,287	1,482
	11	1,116	1,355
	12	1,009	1,214
연 간	13,086	1,292	
1983	1	661	0,878
	2	328	0,667
	3	566	1,168
	4	763	1,168
	5	1,215	1,670
	6	1,065	1,536
	7	1,245	1,706
	8	896	1,295
	9	792	1,204
	10	895	1,294
	11	829	1,248
	12	900	1,308
연 간	10,155	1,243	
1984	1	985	1,360
	2	1,083	1,563
	3	1,046	1,460
	4	904	1,300
	5	849	1,200
	6	904	1,300
	7	875	1,230
	8	765	1,100
	9	904	1,300
	10	984	1,450
	11	1,052	1,580
	12	1,142	1,650
연 간	11,493	1,373	

〈資料〉 Petroleum Economist

國에서 비싼 투자를 하여 분해시설 능력을 대폭 확충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유공장에 투입되는 원유의 重質化 추세는 그리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3. 石油收入증대

국제석유시장이 침체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나이지리아의 石油收入이 계속 꾸준히 증대하여 왔다는 것은 同國으로서는 커다란 위안이 되는 것이다. 지난 해의 나이지리아의 石油收入은 사가리 정부 말기의 101억 5천500만달러보다 13%가 증가한 114억 9천300만달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달러화 강세의 덕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石油收入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 보면, 첫째 군사정부가 1년전 석유제품의 불법수출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원유수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둘째로 1983년 2월 이후 가격인하로 생산량이 증대되어 배럴당 석유수입의 감소폭을 상쇄시키고도 남았다는 점, 셋째로 군사정부가 석유회사들의 지분원유 인취에 과감한 완화조치를 취해 석유사들의 보다 많은 원유를 자유롭게 도입해 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原油생산 참여회사 현황

조업석유사 및 투자지분	油田數
Shell 20%, NNPC 80%	84
Gulf 40%, NNPC 60%	17
Mobil 40%, NNPC 60%	15
Agip 20%, Phillips 20%, NNPC 60%	22
Texaco 20%, Socal 20%, NNPC 60%	5
Eif 40%, NNPC 60%	6
NNPC, Ashland	3
Mobil 50%, Tenneco 37.5%, Sun 12.5%	1
Pan Ocean 40%, NNPC 60%	1
Phillips 100%	1
합 계	155

4. 石油매장량

니제르 델타에서의 탐사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으로 미루어 볼 때, OPEC에서 공식발표된 확인매장

량 165억 5천배럴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가스매장량이다. 현재 생산되는 가스의 대부분은 공중연소되는 형편이므로 정확한 수치의 입수가 불가능하다. OPEC가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가스매장량을 1조 3천700억㎥로 되어 있으나, 다른 통계들은 2조㎥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수반가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머지않아 가스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약 1년 후면 Escravos와 Lagas를 잇는 파이프라인 부설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서부 델타지역의 油田들로 부터 하루 6억㎥의 가스가 Egbin 화력발전소 및 라고스 지역의 공업지역에 공급될 것이다. 동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Saipem社에 따르면, 이 파이프라인의 가스 수송능력은 결국 10억 7천㎥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한다.

나이지리아는 국내 산업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LNG(液化天然가스) 형태로 수출하는 것보다 한층 더 유리하게 되었는데 LNG로서의 수출하는 문제는 잠재시장으로 손꼽을 수 있는 서부유럽이 파이프라인 가스공급망이 확충됨에 따라 전망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민간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군사정부 역시 밖에 내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 동국은 4억5천만달러를 투입 하루 15만배럴 규모의 제4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이 최근에 NNPC와 日本의 일본 가스런, 마루베니사이에 체결되어 현재 자금조달문제가 심의중에 있다. 나이지리아는 수출신용보증을 프랑스 및 日本 정부에 기대하고 있으나, 그들은 기존부채가 정산될 때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雙龍精油·주간石油에너지정보)

